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 4,000萬이 살고 싶은 충남 구상

리가 흔히 「녹색」하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  
고 「백색」을 통해 평화와  
순결을 연상하는 것처럼  
色調마다 표현하는 의미는  
매우 독특하며, 그것이 때  
로는 時代와 歷史의 흐름

에 까지 큰 影響을 미쳐왔  
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체제가 붕괴된 동구  
권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  
금 한창 도시의 색조를 바  
꾸기 위한 작업에 분주하  
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획일성과 암  
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했던  
회색빛 일색을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색조로  
바꿈으로써 개성있는 도시  
로 탈바꿈 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서, 문득 인류역사의 분수  
령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  
라고 하는 대망의 2천년대  
를 불과 5년 앞둔 이 시점  
에,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색조는 무엇인지, 우리 도  
민들이 만들어 가는 색채  
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  
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바로 그것이 발전  
을 상징하는 푸르름이며, 희  
망을 보여주는 장미빛이며,  
충절의 명예와 온유한 심성

을 말해주는 평화의 비둘기 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역사적인 民選 地方化時代를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면서, 이 기쁨을 새로운 忠南跳躍의 힘으로 昇華시키자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처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기치로 내걸었을때 도민들께서는 큰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하는 염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은 결코 일반적인 발전의 척도인 물질의 충족이나, 개발이 우선되는 성장 위주의 발전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땅을 거쳐가신 先祖들의 위대한 精神과 찬란한 文化遺産을 오늘에 繼承하면서 物質과 精神, 開發과 保存이 調和을 이루는 삶의 質 높은 충남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開道 100주

년이 되는 해이자 民選自治 2次년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 입니다. 지난 100년동안의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해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명실공히 충남이 자치적으로 지역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마련한 自治道 政의 기틀을 土臺로 다가올 100년의 도약 의지를 다짐하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달라진 모습과 질 높은 봉사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人本」과 「經營」을 도정의 두축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도민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地域發展 基盤構築 입니다.

환황해권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21세기 西海岸 時代

의 前進基地이자 2천만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써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도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地域開發의 基本方向으로는 과거 물질적 성장위주의 획일적 개발방식에서 삶의 質 향상, 開發經營概念 도입 및 생활권역에 입각한 개발구도의 재설정 등 住民本位の 開發方式으로 轉換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풍부한 開發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면서 발전제약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②人本的·參與的 개발철학을 정립하여 개발의 모든 가치기준을 道民爲主로 변경시키며, ③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開發과 保存의 調和, ④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리면서 모든 개발사업을 통합관리하는 開發經營方式의 導

入 등 입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①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신  
산업지대를 조성하여 수도  
권기능을 능동적으로 분담  
할 北部圈, ②21세기 대중  
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될  
西海岸圈, ③문화·관광·  
위락·특화농업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위한 百濟圈,  
④치수·주운·관광·특화  
농업 육성을 위한 錦江圈  
등 4대권역을 설정하고 모  
든 개발사업을 「4大圈 開發  
經營」으로 統合管理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서, 남-북을 상  
호연결하는 「격자형」도로망  
구축과 철도, 공항, 항만을  
연계한 입체적 동선체계의  
확립으로 廣域交通網을 구  
축하고, 신규 취수원의 적  
극개발과 양질의 급수원확  
보 및 시설 유지관리의 효  
율화로 대단위 개발사업 추  
진에 따라 급증하는 用水需  
要에 對處해 나가는 등 基  
礎投資의 획기적 擴大로 지

역개발의 가속화 기반을 구  
축해 나갈 계획 입니다.

둘째는, 地域經濟 育成施  
策의 活氣찬 推進입니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선진  
공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  
성하며 中小企業의 애로사  
항인 자금난과 판로를 地方  
의으로 支援 하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觀光資源 開發  
을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  
와 21세기 농업기반을 착실  
히 구축하고 국제통상협력  
교류 확대를 통해 海外市場  
을 적극 開拓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업도로서의 위상  
과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農漁村 活力化 10大 施策과  
100가지 사업을 본격추진하  
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農產物 流通施設을 擴大하  
는 한편 농어촌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農漁民  
의 士氣振作을 위한 「농정  
서비스시책」을 적극 추진하  
여 21세기형 프로농업 기반

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셋째는, 社會的 衡平을  
위한 福祉施策의 균형적 推  
進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新福  
祉施策을 마련하여 법적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 곤  
란자에게는 特別生計費를  
支援하고, 장애인에게는 개  
인별, 장애정도별, 직업별  
특성에 맞는 自活保護를 推  
進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문화·생산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노  
인종합복지회관」을 연차별  
로 건립하고, 여성정책 전  
담기구(여성정책심의관실)  
가 설치됨에 따라 女性福祉  
와 地位向上을 위한 施策을  
적극개발·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넷째는, 쾌적한 自然環境  
保全과 도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環  
境保護施策의 展開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의 환경보호선언인「로컬아젠다 21」(local agenda 21)을 선포하고, 첨단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道內 40여개의 초등학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운영 하는 등 우리도 全地域을 淸淨地域으로 保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는, 충남정신을 21세기 정신문화 창조의 시대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忠南精神 發揚運動의 본격점화입니다.

스승존경운동, 도의새마을운동, 고향사랑운동 등 「충남정신 발양 3大운동」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테마박물관」 설립과 개도 100년사 발간, 「충남답」건립 등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 固有의 精神을 發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완벽한 災難管理體制를 構築하여 주민생활

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구조·구난능력을 보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될 때 精神的으로는 인간미와 여유를 겸비하고, 物質的으로는 풍요로움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이 보장되며, 空間的으로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 속에 쾌적한 보금자리가 꾸어질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멋과 맛과 흥과 정」이 어우러져, 4천만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복된충남 건설이라는 道政目標이 달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라기 보다는 「地方經營時代」에 살고 있으며, 중앙의 논리보다는 地方의 論理가, 중앙의 획일성 보다는 地方의 效率性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省公務員에게 프로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경영교육과 기업형 지방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도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

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姿勢와 覺悟가 必要한 시기입니다.

우리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정 100년의 문을 활짝 열면서, 보다 새로운 創造, 더욱 힘찬 挑戰, 그리고 名譽를 더해가는 使命感으로 충남인의 지고한 목표를 향해 새롭게 出發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무한한 可能性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름답고 밝고 희망찬 색깔로 「충남 21세기」를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진정 2천년대의 우리 충남은 統一國家시대의 모방적인 地方政府이다.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서 4천만이 살고싶은 최상의 복된터전으로 跳躍하리라 확신 합니다.

200만 도민의 애정어린 성원과 참여, 그리고 省公務員의 분발을 거듭 당부드립니다.